

Saemmul Christian Academy

SMCA

2023 봄여름 소식지
샘물이야기 vol.14



목차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5기 졸업생의 편지 (4)

한 대학생 이야기 (9)

[10학년 비전트립 나눔] 네팔 카트만두 Surachana English School팀, 11기 김경민A (11)

[10학년 비전트립 나눔] 충남 당진 갈산교회팀, 11기 김정원 (16)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19)

은혜샘물유치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20)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 (22)

3학년의 6분 소설 (25)

6학년, 꽃들에게 희망을 (26)

2023 WCA 영어캠프 (29)

샘물중고등학교

동아리 앰퍼샌드의 WCA팀 환영 선물 제작기 (35)

영어번역 동아리의 은혜샘물초등학교 영문 브로셔 (40)

8학년의 글쓰기: 샘물수업 '가면에 대하여' (42)

11학년,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45)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5기 졸업생의 편지

(편집자주) 지난 7월 초, 한 선생님께 5기 졸업생(2013년 입학, 2019년 2월 졸업)의 편지가 전해졌어요.

샘물을 졸업하고 보니 마주한 세상에 절망이 되어 울기도 했지만, 샘물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6년이란 시간을 매일 교회 안에서 살아가던 그때는 몰랐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구별되지만, 녹아들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 생각한다고요. 후배들에게, 공부 못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대학이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사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후배들에게 꼭 말해 달라고 편지를 전해 왔어요.

선생님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 편지 전문을 실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맺음과 장마로 많이 분주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과 후배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기독교적 가치의 쇠퇴는 물론,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없는 다음 세대는 확정적입니다. 사회에 나아가 어떤 지위와 힘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낮아짐과 약한 자를 들어쓰시니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위치가 중간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물 후배들을 포함해서요.

아직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라는 것을 두고 저는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참 애매한 중간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저 한자라도 더 공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확고히 하는 거라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한 세상을 보고 처음에 저는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망이 없게 느껴지더라구요. 앞서 나눈 생각들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억들이 후배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네요.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주류인 미디어와 성 관념, 문화가 얼마나 얼토당토없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많은 청년들이 자극에 절어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본인들은 모릅니다. 기독교인조차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체계가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한 세상을 보고 처음에 저는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망이 없게 느껴지더라구요. 앞서 나눈 생각들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억들이 후배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네요. 사랑하는 후배들이 마주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수호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응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샘물의 여러 가치들과 슬로건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샘물학교의 여러 가치들과 슬로건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들은 친구들보다 유독 이런 문구들을 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

"매일, 조금씩, 천천히"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방학은 학업을 놓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시간이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다"

기독교와 관련없는 연구지만 이런 가치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가치와 문구들 이전에 항상 학생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기에 저는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람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저는 영향을 덜 미치고 살아갔을 때 그 수가 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물론 당시에 와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후배들은 이제 곧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 안에서 구별되지만 녹아들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혹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격려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도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사교육 받는 친구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속은 병들어있더라구

요. 물론 순기능을 잘 취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제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다. 성적 오르지 않아도 문제없다.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가는 대학이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한

“ 제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다. 성적 오르지 않아도 문제없다.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가는 대학이 나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사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공부 열심히하고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 고3 미적분 수업에서 방학에 13~14시간을 순공부시간으로 잡았다고 한 이야기가 혹여나 부담을 주거나 좌절시키지는 않았을까 우려가 되더라구요. 행위가 먼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 주어진 시간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말씀해주세요 :)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사랑하는 후배들을 잘 양육해주시고 품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 주시길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후배들은 이제 곧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 안에서 구별되지만 녹아들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혹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격려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도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한 대학생 이야기

(편집자주) 2023년 6월 15일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하는 연합예배. 이 자리에서 양석현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선생님들은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난다고 해요.





며칠 전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학에서 청소 용역 업체가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 전체 청소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포함한 학교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그 대학의 한 학생이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네가 청소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득달같이 다음 날 학교 총학생회에 달려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하겠으니 공지를 올려달라, 그래서 자원자를 받아서 내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여러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모아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도 깨끗했대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청소 업체도 무사히 복귀하셔서 계속 깨끗한 학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딩 기술이 있고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일까요? 사실 그 대학생은 우리 샘플의 졸업생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깜짝 놀랐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지금 이 자리 샘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락)

#

[10학년 비전트립 나눔]

(편집자주) 샘물중고등학교 11기(현재 11학년)가 10학년 겨울방학이었던 2023년 1월,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샘물의 10학년들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겨울방학에, 그동안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선교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비전트립은 학교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익히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제자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3년 만의 비전트립이었습니다. 충남 당진과 전북 김제의 작은 지역 교회로, 그리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어린 아이들과 교회 속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녀왔습니다.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스가랴 8:23)’는 말씀을 붙들고 준비했다는데요.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만나며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부흥,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이 일들은 학생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남겼을까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 충남 당진 갈산교회: 2023.1.11 ~ 1.14
- 전북 김제 세광교회: 2023.1.11 ~ 1.14
- 네팔 카트만두 Surachana English School: 2023.1.9 ~ 1.18

서로의 꿈을 나누었던 네팔에서의 7일

네팔 카트만두 Surachana English School팀, 11기 김경민A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게된 샘물 중고등학교 11학년 1반 김경민 입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내에 준비를 마쳐야 했기에 더욱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준비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 였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알차게 팀원들과 같이 사역을 준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아니라 팀원들도 팀장인 저의 말에 잘 따라주어 보다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준비를 마치고 네팔로 떠났습니다 비행을 아무런 사고없이 잘 마쳐 우리 친구들이 네팔에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팔 사역 1일 차에는 현지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소를 체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학교에서 점심을 준비해주셔서 맛있는 점심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점심을 직접 해서 먹어야 했지만, 현지 학교에서 점심밥을 먹을 수 있었던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보는 아이들과 활동을 하자니 떨려서 말이 잘 안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두마디 하다보니 착한 아이들과 친해져 꿈도 물어보고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오기 전 부터 걱정 했었던 언어의 문제는 다행히 아이들이 영어를 꽤나 잘 하여서 감사하게도 우려했었던 바와 달리 잘 해결되었습니다.



셋째날 학교에 가보니 전날과 달리 몇몇 아이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 또한 사역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것 같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웃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달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과정부터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넷째날 학교사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운동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연과 시상,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막상 저희가 떠난다고 하니, 아이들이 눈물을 보이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저희가 사역을 꽤 잘 진행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 한 후에 현지 학교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였습니다. 나눔을 할때에 선생님들도 저희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주셔서 다 뿌듯했습니다.

다섯째날은 현지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교회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네팔 청년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열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청년 공동체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공

동체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네팔의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나누고, 같이 찬양도 부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째날 한인 교회를 방문 하였습니다. 교회의 신도들 분들이 다 친절하시고, 찬양부터 설교, 교회에서 주시는 점심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시내투어를 했습니다.

일곱째날 어와나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나가르고트로 출발하였습니다. 나가르고트에 도착하여 일몰을 보기위해 전망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니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자연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친구들과 선교를 맺는 나눔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이번선교에서 성장한점과, 느낀점을 나누는데, 친구들이 이 사역을 하는동안 크게 성장한 것을 느꼈고, 저는 이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번 선교를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없을정도로 주님의 도우심이 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마지막날은 나가르고트에서 카트만두까지 이동하고, 컨디션이 안좋은 친구들이 많아 출국전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네팔에서 출국을 하였습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네팔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던것, 천사같은 네팔 아이들과 만난것, 저희 네팔팀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한국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던것, 네팔에서 있었던 사소한 모든 일 까지 모두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의 씨앗

충남 당진 갈산교회팀, 11기 김정원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트립 국내 갈산교회팀 팀장을 맡았던 김정원입니다.

비전트립을 가기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과연 잘 해낼수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또한 팀장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것과 달리 비전트립을 가서 보낸 3박4일 동안의 시간들은 감사한일로만 가득했던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조금이라도 빨리 친해질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첫째날에 경로당에 갔을때에는 조금은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다보니,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저희를 손녀 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경로잔치 공연을 하면서 물론 작은 실수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할머니할아버지 분들이 즐겁게 봐주셨고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준비하





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수 있을지 보여지는것에만 집중을 했었던것 같은데, 우리가 비전트립을 가는 목적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 함임을 떠올리며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갈산교회 목사님께서 잔치가 끝난뒤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않던 한 할아버 지께서 경로잔치를 보러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한 매일밤 저녁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됨을 경험할수있는 시간이었던 같아 감사했습니다. 3 박4일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고,우리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나가 누군가에게 새생명을 전하는 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트립을 준비하며 다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힘들었을텐데 그럼에도 불만불평없이 열심히 준비해주고 따라와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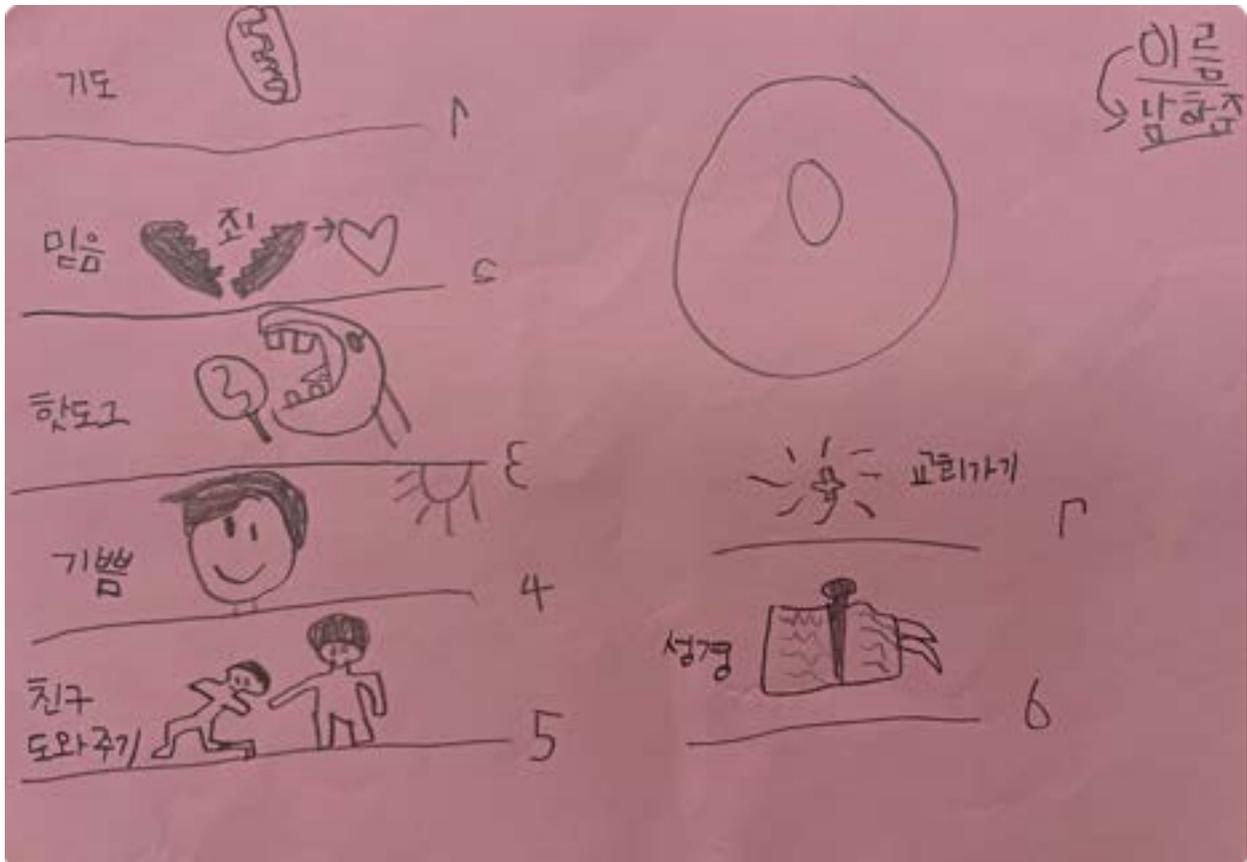
은혜샘물유치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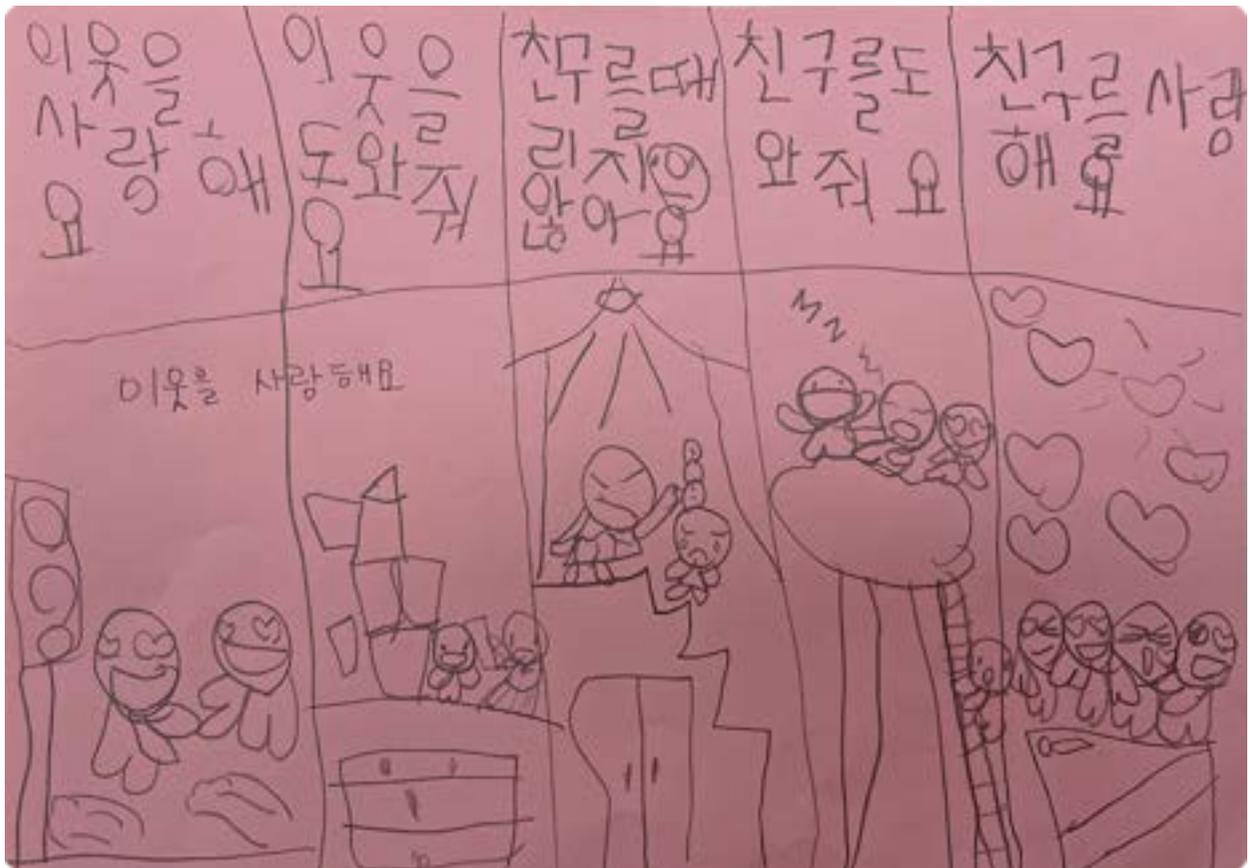
지난 7월, 7세반 뭉클 선생님께서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7세반은 바이블 캐릭터 프로젝트 '다윗'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주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다윗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나님과 합한자가 될까?' 라는 질문에 두 친구가 적은 내용이 너무 귀해서 공유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인데 이렇게 표현해줘서 정말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6학년,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 소개 (6학년 담임 윤정선 선생님)

6학년 학생들은 사회 교과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을 통해 '가계의 합리적 소비' 개념을 배웁니다. 가계의 합리적 소비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며,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상은 교과서 내용)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연습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은혜샘물교회 윤만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소개되었던 '기적의 100달러'를 적용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만원을 주시면 아래의 원칙과 절차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다.
2.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기한은 2주)
3.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부모님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후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

*각자 계획하고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명까지 같이 할 수 있음

**구호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가까운 이웃과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추천함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6학년 신 건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돈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만원을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힘찬이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져서 친구들과 체육이나 뛰어노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해지는 희귀병입니다. 그리고 힘찬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적인 책과 힘찬이가 좋아할 것 같은 아이슬라임, 그리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술치료사인 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미술치료장소에서 힘찬이에게 작은 마음을 담은 이 선물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힘찬이는 놀랐고 매우 고마워하고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저는 이 만원이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계획도 세우고, 선물도 사러 가고, 편지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 친구가 기뻐했다니 저의 기쁨도 100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도록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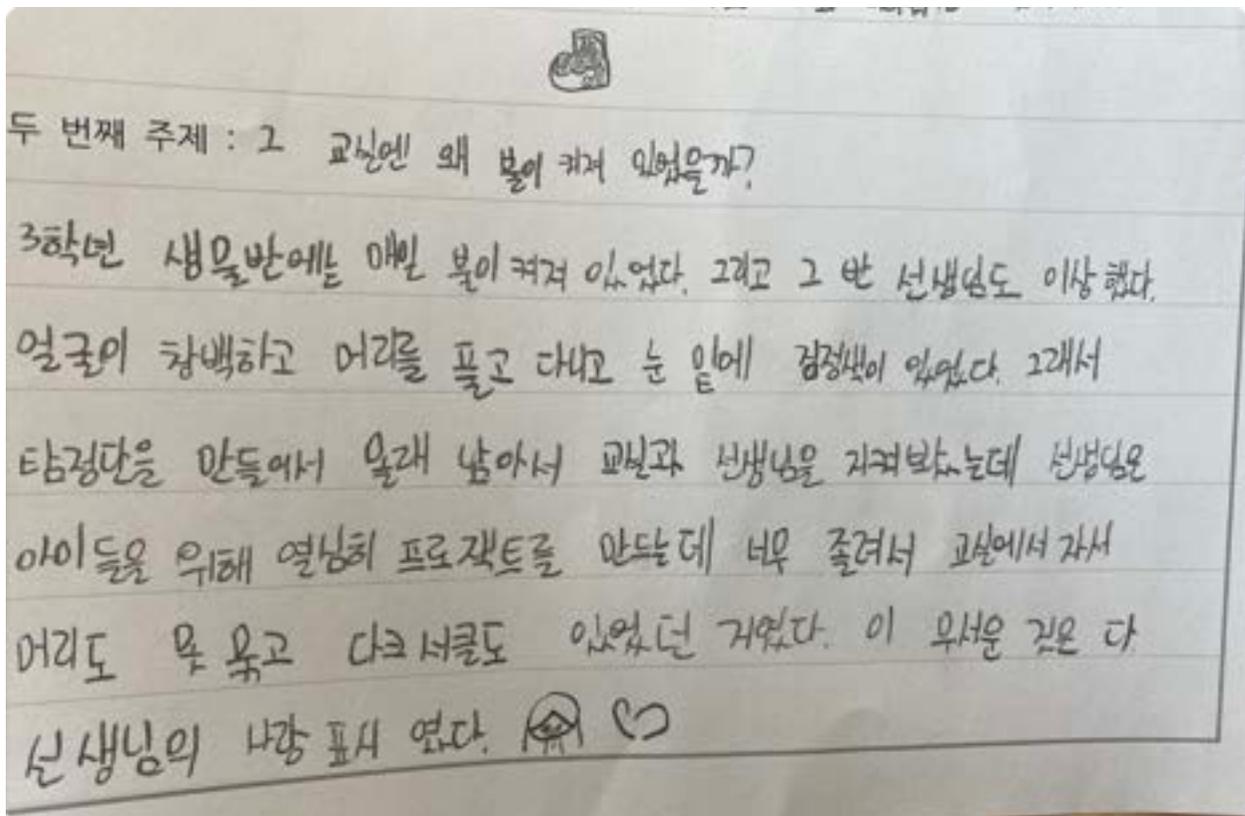
그 밖에 6학년 친구들은 만원으로

- pro-life(낙태반대) 운동의 취지, 생명권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프로라이프 토크 콘서트에 참여
- 학교 안 청소 집사님들, 경찰서와 소방서 등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함
- 미혼모 보호시설 생명의집을 방문해 아기 선물(치발이, 딸랑이세트)와 편지 전달
- 카카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쓰고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해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림
- 채소를 파는 할머니에게 채소를 사서, 그것으로 전을 부쳐 경비원 아저씨에게 드리는 활동 등, 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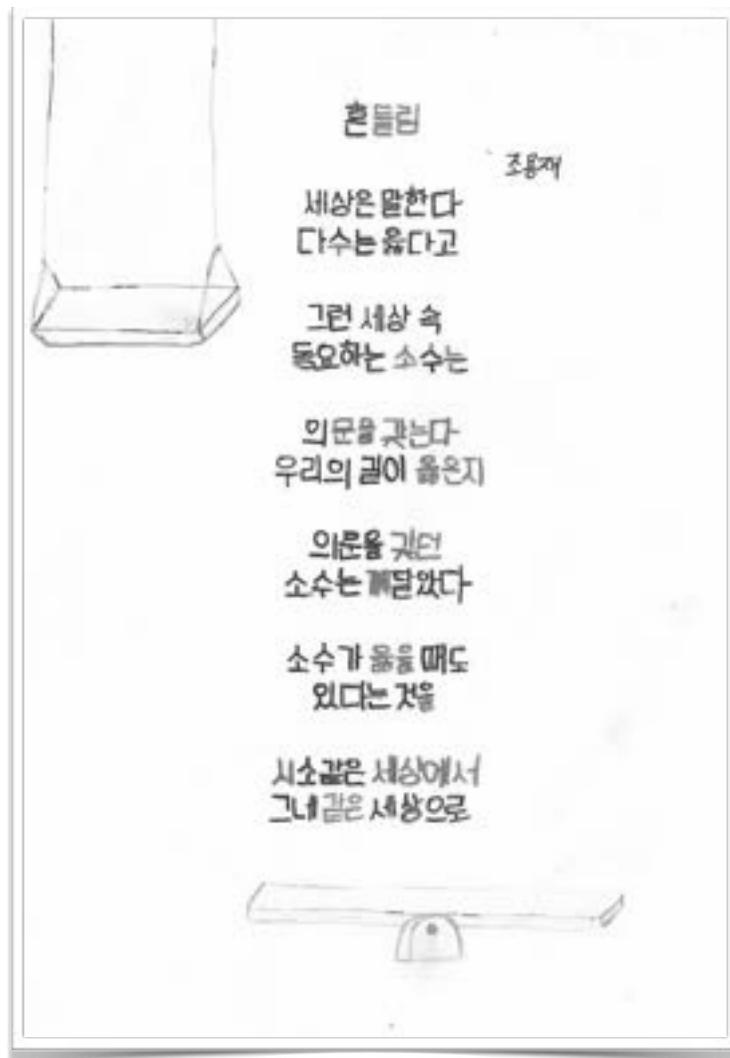
3학년의 6분 소설

초등 3학년 국어 수업 중에 6분 소설 짓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동안 나만의 소설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한 학생의 소설이 흥미로우시다면 선생님께서 짧은 소설을 보내주셨답니다.



6학년 시, 꽃들에게 희망을

6학년들이 '꽃들에게 희망을' 책으로 수업 후, 비유법을 사용하여 시를 썼습니다. 나비, 희망, 애벌레, 고치, 성장... 책을 읽은 후 얻게 된 학생들의 생각이 깊습니다.



희망

강다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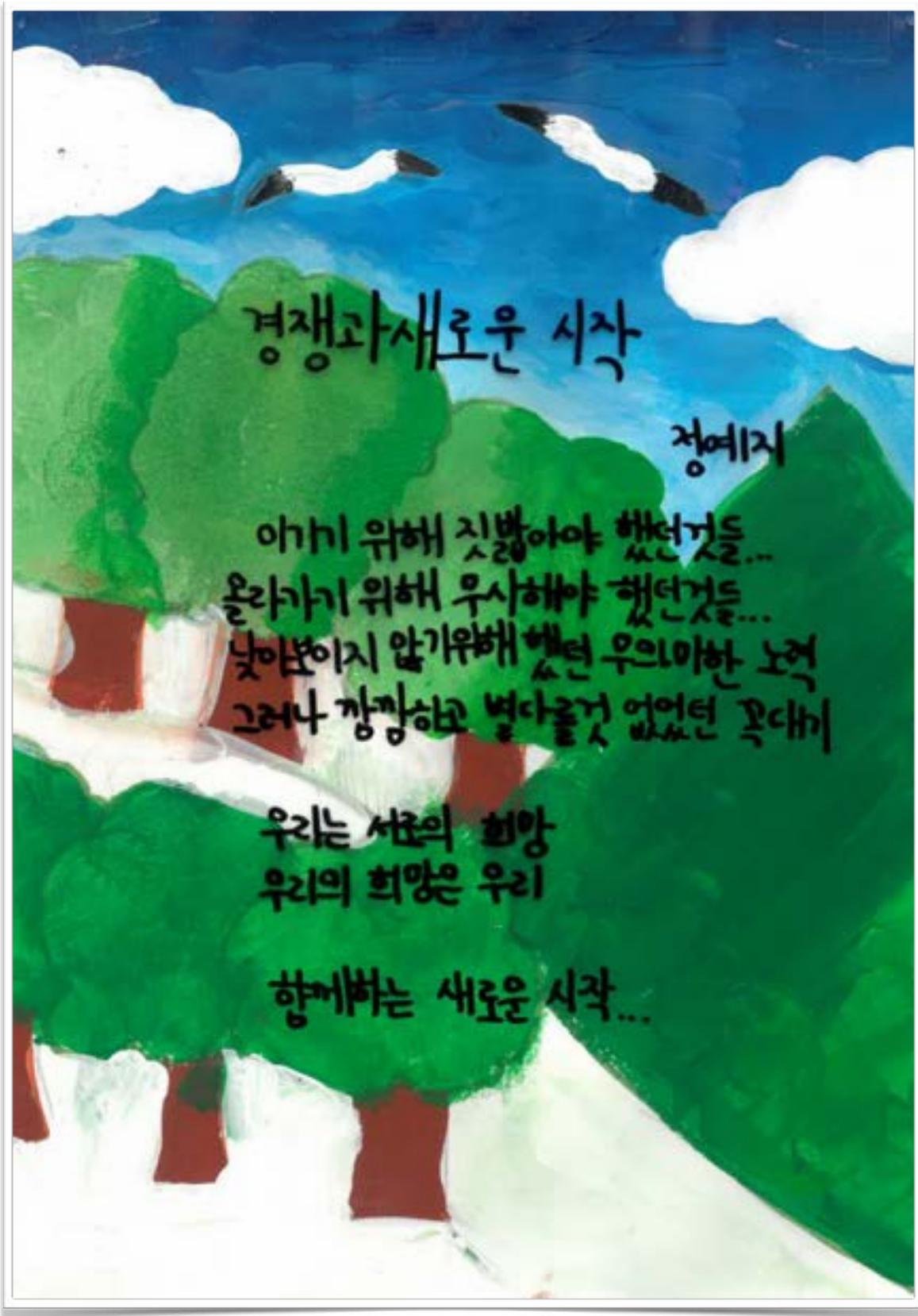
나는 내가 하찮은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빈한 나비를 보았지
하나의 무지개 처럼 멋있게 날아가는...

나비는 꽃가루를 다른 꽃에게 운반해 주지
희망을 옮기는 것처럼...

나는 나를 다시
보았지
하찮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란 것을





경쟁과 새로운 시작

정예지

아기 위해 지팡아야 했던것들...
올라가기 위해 무사해야 했던것들...
낮아보이지 않기 위해 했던 무의미한 노력
그러나 강강하고 댕다줄것 없었던 꼭대기

우리는 세운 희망
우리의 희망은 우리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이번엔 초등학생

2023 WCA 영어캠프

Westminster Christian Academy

샘물배움공동체의 미국 자매학교,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와 함께하는 2023 WCA 영어캠프가 7월17일(월)~21(금) 샘물 교내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샘물중고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여름영어캠프가 올해는 은혜샘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5,6학년 68명의 학생들과 카라크리스천스쿨, 더샘물학교 등 이웃 기독교학교 32명 등 총 100명의 학생들이 이번 WCA 영어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5,6학년 및 이웃 기독교학교 학생까지 100명 참여

이를 위해 WCA 교사 및 학생 19명과 샘물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학생 3명이 클래스 교사로 함께 했으며 10여 명의 샘물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로 섬겨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12명의 WCA 학생들은 샘물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샘물의 학생들이 WCA를 방문했던 겨울캠프에서 시작된 양 학교 학생들간의 관계가

이번 여름캠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홈스테이로 섬겨주신 6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표현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능력을 높이는 한편, WCA 및 카라크리스천스쿨, 더샘물학교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환대, 존중, 배려를 경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반으로 나뉘어 체육활동Activity, 공동체놀이Connections, 과학Science, 드라마Drama, 인체Anatomy, 미국문화American culture 등을 주제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 직접 제작한 환영 선물 패키지 전달

특별히 샘물중고등학교 마케팅·디자인 동아리 앰퍼샌드에서 WCA 손님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환영 선물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앰퍼샌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선물 패키지에는 웰컴카드, 비누, 마스크테이프, 키링, 머그컵,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까지 총 8종의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전해진 은혜샘물초등학교를 설명하는 영어브로셔는 샘물중고등학교 영어번역 동아리가 제작해 주었습니다. WCA 손님들에게 전하는 마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심을 다했어요.



이번 WCA 영어캠프를 위해 WCA 교사 8명, 학생 11명 등 총 19명의 WCA팀이 샘물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이끌고 온 리더 **Karen Bowman (WCA Global Education coordinator)**을 캠프 마지막날 만났습니다. 2015년 WCA 영어캠프로 샘물을 처음 방문한 이후, 올해까지 4번째로 샘물을 방문한 Karen은 지난해까지 activity time 교사로 캠프에 참여했고 올해는 캠프 총괄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캠프의 목표, 우리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WCA와 SMCA의 파트너십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WCA 영어캠프를 평가하신다면요. 목표한대로 진행되었나요?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갈수록 복도에서도 영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첫 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캠프 첫 날에는 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많이 수줍어했는데 캠프 마지막 날인 지금은 제가 복도를 걸어가면 저에게 와서 “Hi, Teacher, How are you”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잘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피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고 수업 참여도 더욱 활발해지니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이번 캠프는 은혜샘물초등학교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샘물중고등학교 재학생 12명이 자원봉사로 함께하며 수업을 도왔지요. 가까이서 본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원봉사로 참여한 샘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섬김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에 없는 도움이었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도움들을 그때그때마다 빨리 전해주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도 정말 훌륭했어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친절한 학생들이에요. 처음에 몇몇은 수줍을 많이 타고 머뭇거리기도 했었지만 캠프 마지막 날인 지금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WCA와 샘물배움공동체(SMCA)는 2009년 샘물배움공동체 설립부터 자매학교로 함께하며 오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여름에는 SMCA에서 겨울에는 WCA에서 캠프를 진행하며 교류해 왔는데요. 양 학교간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샘물을 좋아하는데 샘물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2015년부터 샘물과 함께하는 캠프에 참여해 왔고 샘물과 함께 일하는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샘물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여름캠프에서 WCA 학생들은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고, 샘물의 학생들은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니 서로 유익입니다. 샘물 학생들이 WCA에 오는 겨울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샘물 학생들은 WCA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한편,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갑니다. 저는 WCA와 SMCA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봅니다.

SMCA 고영민 총괄이사님과 향후 또다른 방향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만, 아프리카 잠비아 등 섬김이 필요한 곳에 가서 WCA와 SMCA가 함께 그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프로젝트

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비전이 있다는 점에서 WCA와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샘물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

[영상] 샘물오늘 2023년7월19일_WCA 영어캠프



WCA 영어캠프, 5일간의 기록



동아리 앰퍼샌드의 WCA팀 환영 선물 제작기

2023년 7월, 2023 WCA 영어캠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샘물의 자매 학교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 교사 및 학생 19명을 위해 샘물의 동아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마케팅·디자인 동아리 앰퍼샌드는 WCA 손님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환영 선물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앰퍼샌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선물 패키지에는 웰컴카드, 비누, 마스킹테이프, 키링, 머그컵,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까지 총 8종의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전해진 은혜샘물초등학교를 설명하는 영어브로셔는 샘물중고등학교 영어번역 동아리가 제작해 주었지요.

WCA 손님들에게 환영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었던 우리 학생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학생들이 우여곡절 제작기를 전해왔어요.

[WCA 웰컴패키지 제작기] 웰컴패키지를 만들기까지

동아리 앰퍼샌드 동아리장 강여진 (11학년)

저희는 학생개설 동아리로 디자인과 마케팅에 관심있는 10,11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지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데 동아리 첫시간, 1년동안의 활동 계획을 짜는 중에 한 친구가 올해 WCA에서 은혜샘물초등학교의 영어캠프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떨것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9년 샘물의 설립부터 시작된 WCA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샘물이 기독교학교로 세워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캠프의 섬김과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굿즈들과 물품들로 구성된 웰컴패키지로 전달하는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교에 의견을 냈고,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요소와 WCA의 요소를 접목시키기까지

외부활동으로 봄학기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여름학기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학패키지를 준비했었던 경험으로 수월할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샘물과 WCA의 자매결연을 표현하는 요소들을 함께 접목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않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패키지의 메인컬러는 두 학교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블루로 정했고, 디자인 팀은 각자 맡은 물품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많은 수정들을 거쳐서 메인 기프트였던 머그컵과 마스크티이프, 키링에 샘플과 WCA의 자매결연 관계를 표현한 로고를 넣어 제작하였고, 스티커는 샘플 버전과 WCA버전을 각각 한장씩 총 두 장을 세트로 디자인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제작했습니다. 서명문화를 가진 WCA분들에게 도장이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찍는면에는 실제로 사용할수있도록 영어 이름을, 옆면에는 한국발음으로 표기된 이름을 각인했습니다. 또한 복주머니에 약과, 유과, 알사탕 등 한국의 여러 간식들을 맛보실 수 있도록 포장했고, 총괄이사님의 글



을 담은 웰컴카드와 영어번역 동아리에서 제작한 소개 브로셔도 포함되었습니다. 비누는 동아리원들이 직접 공방에 방문해서 제작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thank you라는 문구를 각인하여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은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표현하는 보자기와 노리개를 사용해서 직접 리본을 묶어 마무리 하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준비했던 한 달의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물론 힘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부딪힐때도 있었지만 이 선물을 받을 WCA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벅찼습니다. 포장을 다 마무리 하고 웰컴패키지를 한자리에 모두 놓았을때엔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손으로 웰컴패키지를 직접 전달할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선물 소개를 하고 한 분 한 분께 전달을 할때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땀흘려 마음쓰며 열심히 준비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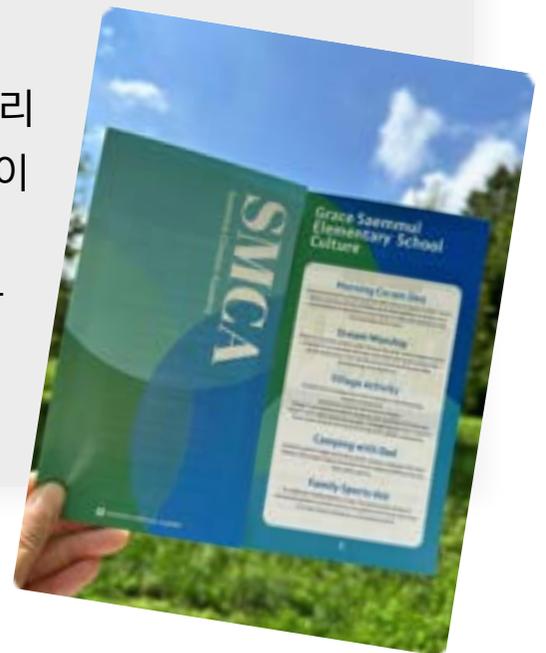


영어번역 동아리의 은혜샘물초등학교 영문 브로셔

이번엔 영문 브로셔입니다. 학교를 방문한 WCA팀을 위해 샘물중고등학교의 영어번역동아리에서 은혜샘물초등학교를 소개하는 영문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 사명선언문, 은혜샘물초등학교의 문화, 한국과 미국의 다른 문화 중 알아두면 좋은 점, 한국의 십대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장소 등 꿀팁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번역동아리는 이번 가을겨울학기에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번역한다고 해요. 이미 몇몇 섹션은 번역작업에 들어갔다니, 조만간 우리 학교 영문 홈페이지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Dear WCA guests

Welcome to SMICA!

It is such a great honor to have you at Saemmul this summer.

We are members of Saemmul Christian Academy's English Translation club, known as E.T and we do various English-related activities.

Our club created a brochure for you, which contains SMICA's Mission statement, culture of Grace Saemmul and useful tips about South Korea.

It was truly a pleasure for us to make this brochure, and we sincerely hope that it will help you enjoy your time in South Korea and Grace Saemmul.

We wish you a delightful and joyful time with the students of Grace Saemmul.

1

Mission Statement

SMCA aims to help God's children become faithful servants who expand the Kingdom of God.

By establishing pride and identity as disciples of Christ, and serving each other as devoted stewards through the talents God has given us, we strive to transform world culture and expand the Kingdom of God.

Our Christian education helps our students grow spiritually and personally like Jesus, discover their God-given talents, develop these talents as they grow into young men and women who follow the path of Christ.

2

Grace Saemmul Elementary School Culture

Morning Coram Deo
Every morning Grace Saemmul's ten daily classes listen to God's word before starting school activities. Each class gathers to praise, pray and meditate on the Bible to learn how to walk with God daily with God and obey God's word.

Dream Worship
There is a worship service called 'Dream Worship' which happens once a month. It is a worship that sees class takes the lead in preparing praise and prayer notes, grades praise that is joyful and offer thanksgiving and obedience.

Village Activity
Students have villages from the 1st grade to the 4th grade, mostly in Saemmul elementary school, there are 12 villages.

Village is an activity in which students plan and take the lead over projects and topics across the grades. Through this activity, students learn leadership by serving and loving each other's gift and community.

Camping with Dad
Students spend 1 night and 2 days at the campus camping with their fathers. They make happy memories which might be difficult during their daily routine.

Family Sports day
To celebrate Family month in May, the entire Grace Saemmul community gathers to have time to strengthen their body and mind. It is also a time to bond as a community to God.

3

Map & Location of elementary schools' special classroom

Map

Location

Chapel	Grace Hall 201
Library	Grace Hall 501
Gym	Grace Hall 601
Music Room	Annex building F Room 201
Art Room	Annex building F Room 203
IT Room	Annex building A Room 103

4

Good Things to Enjoy in Korea

Travel Culture	Good Things to Enjoy in Korea	Phone
1. Transportation	1. Food	1. Money
2. Accommodation	2. Entertainment	2. Language
3. Safety	3. Education	3. Internet
4. Weather	4. Nature	4. Health
5. Customs	5. Festivals	5. Other

If you want to spend time delightfully in Korea, please scan this QR code.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and the whole contents of this brochure.

5

* 영어번역동아리 동아리원:
9학년 배영현 황지우, 10학년 양은석 박명석, 11학년 허소윤 심수민

8학년의 글쓰기: 샘물수업 '가면에 대하여'

샘물중고등학교 샘물수업은 샘물의 독특한 학년별 융합수업입니다.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농사, 목공, 도예, 연극, 미술, 미디어, 인문, 사회, 세계관, 은사발견, 리더십 등 다양한 학문과 주제를 연결하는데요. 특별히 8학년 샘물수업은 연극, 미술, 미디어가 융합된 예술 융합으로 봄여름 예술 프로젝트를 거쳐, 가을겨울 종합창작극 제작으로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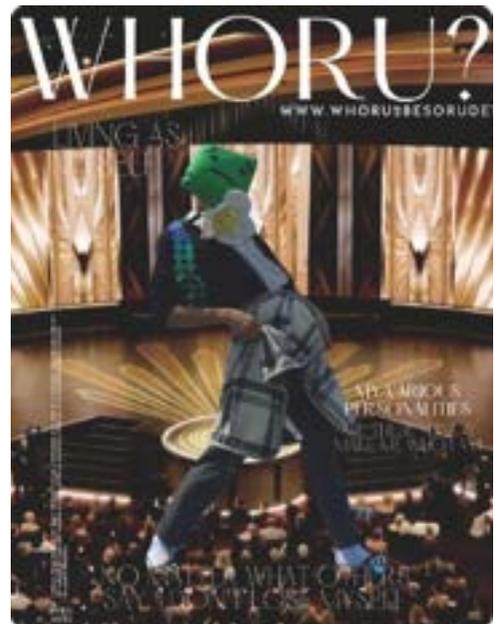
올해 봄여름, 8학년 학생들은 가면을 만들고 가면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진행했어요. 두 학생의 글을 씁니다. 글들이 조금 어려워 깜짝 놀랐지만 8학년의 글쓰기가 이런 건가 봅니다^^.

글 하나.

"너는 정말 걱정 없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궁금해진다. 나는 실제로 아무런 고민 없이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 생각하는 것일까?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사람을 더 선호하는 타인의 취향 신경을 쓴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확신이 가득한, 나의 내면 자아와는 다소 대비되는 외면 자아를 형성한 것일까? 각 사람의 자아는 실제로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 아닌 개인의 내적 모델이 타인이 나에게 내릴 평가를 예측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까닭에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본 뒤에 내릴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에 대해 판단하기 앞서 스스로의 열등감을 감춰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외면 자아는 자신의 열등감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은연중에 반영한다. 그렇게 타인의 평가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써서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욱 자신다운 모습을 아무 걱정 없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 그 속에서 해방감과 편안함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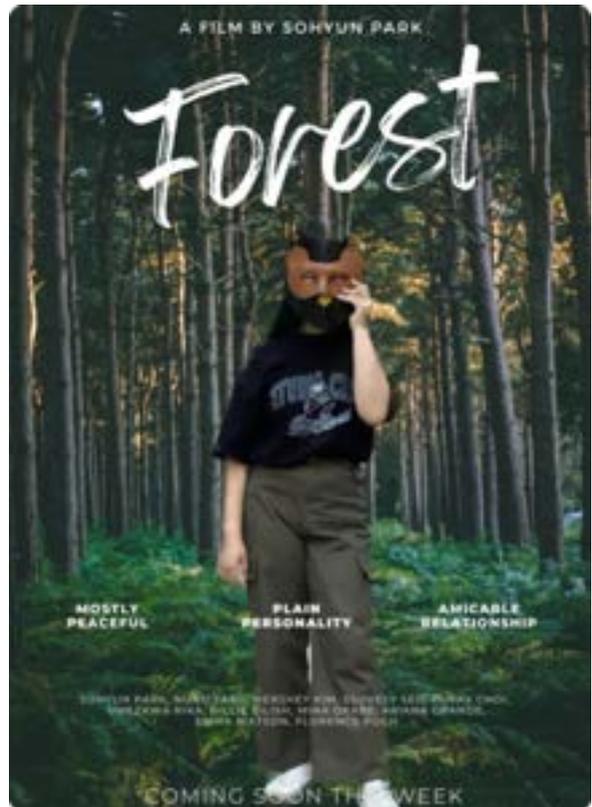
글 둘.

겉면은 흰색으로 칠해지고 안에는 화려하고 개성있게 칠해진 가면은 홀로 있을 때 비로서 가장 나 다워지는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무채색인 흰색으로 칠해진 가면의 겉면은 남의 눈에 띄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개성과 특징을 지워버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안쪽에 화려하게 칠해진 물감들은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자신만의 은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만 들어나는 개성있는 개인의 내면 자아를 상징하는 듯 하다.



글 돌.

난 어쩌면 일종의 선입견이었을지도 몰랐을 가면에 대한 강박적인 긍정적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가면이 100% 벗겨진 본래의 나를 자연스레 투박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테고, 그러나 어느 순간 초라하다고 인식되었을지도 모른다.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사상을 완벽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설명하는 가면의 메시지의 귀 기울이다 나 역시 그들이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라고 다르다는 보장은 없었다. 가면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빠져 그에 따라오는 부담감과 답답함에는 눈길 하나 줄 틈이 없었기에 나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를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이제 그것을 덜어주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로써 보편적인 시각을 가졌던 나에겐 맹목적으로 가면을 내려놓을 이유가 생긴 셈이다.



11학년,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

샘물중고등학교 **11학년들의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 자기주도학습 피드백 시간에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을 나의 생각으로 다시 써 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글이 너무 좋다며 선생님들이 소식지에 소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몇 개만 골라달라 요청드렸더니, 11학년 학생들이 투표로 4개를 뽑아주었습니다.

11학년들이 꼽은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
4개의 글을 소개합니다.

[원작] 박노해 시인,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박노해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잘 차려 입고 자주 옷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길을 나서
기

수아의,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이수아

뽕송뽕송하게 샤워하기
좋아하는 노래들으면서 산책하기
한숨 푹 자고 일어나기
맛있는 밥 실컷 먹기
친한 친구들과 마음 편히 놀기
열심히 운동해보기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오기



여진이의,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법

강여진

별이 잘 들때 일어나기

작더라도 긍정적인 부분 찾기

햇살 좋은 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걷기

찬양 들으며 가사 읽기

친구들과 수다 한 바탕

방 청소하기

나를 위한 선물하기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며 TV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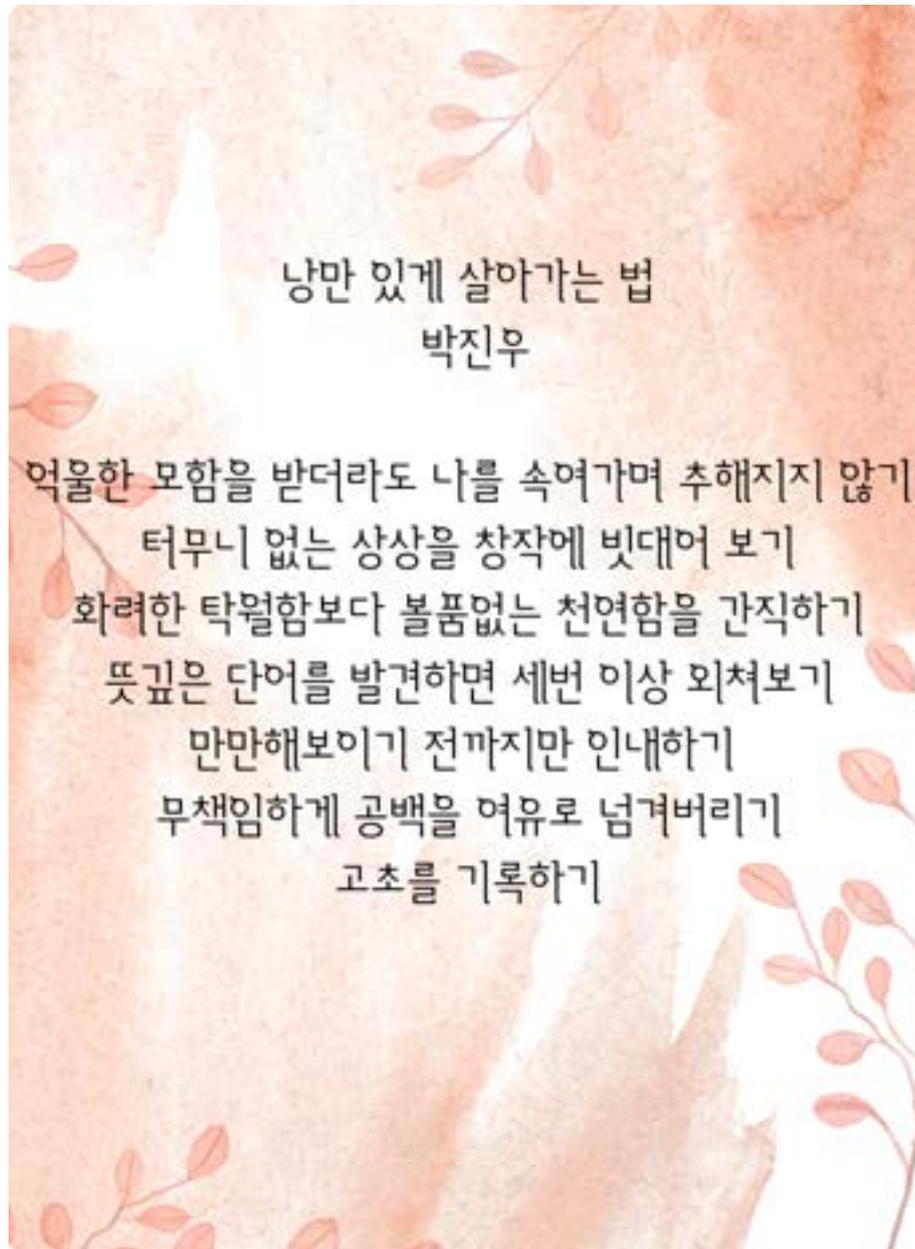


예린이의,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

다시 꽃꽂이 살아가는 법
조예린

맛있는거 먹고 힘내기
완전 푹 자기
보람차게 운동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기
서로에게 '별것'이 되어주기
좋아하는 노래듣기
늦은 밤에 일기 쓰기
슬프면 울고 힘들면 힘들다 하기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진우는 낭만있게 살아가는 법을 썼어요 :)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3.08.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 www.smca.or.kr